

# 인문서적 심취... 피사체 읽는 통찰의 힘 키워



## 5 사진작가 배병우

빛이 좋은 5월의 하순 어느 날, 파주 헤이리 예술촌에서 배병우 사진작가를 만났다. 하늘은 맑고 빛은 밝아, 사진 찍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다. 밀리터리 룩을 입은 그에게선 젊은 피카소의 분위기가 흘렀다.

아니, 그는 사진작가라기보다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어부의 느낌으로 다가왔다. 다부진 체구와 평균치를 웃도는 큰 키는, 정서적 울림을 주는 사진작가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그의 고향은 미항 여수다. 바다는 오늘 그의 그릇 만든 생애적인 공간이다. 그의 사진에는 숨죽일 듯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자리한다. 작품에는 분명 바다가 보이지 않는데, 바다의 냄새와 소리가 은연중 배어나온다.

“사진은 자연에서 시공간을 끌어오는 작업입니다. 선택하고 압축해서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편인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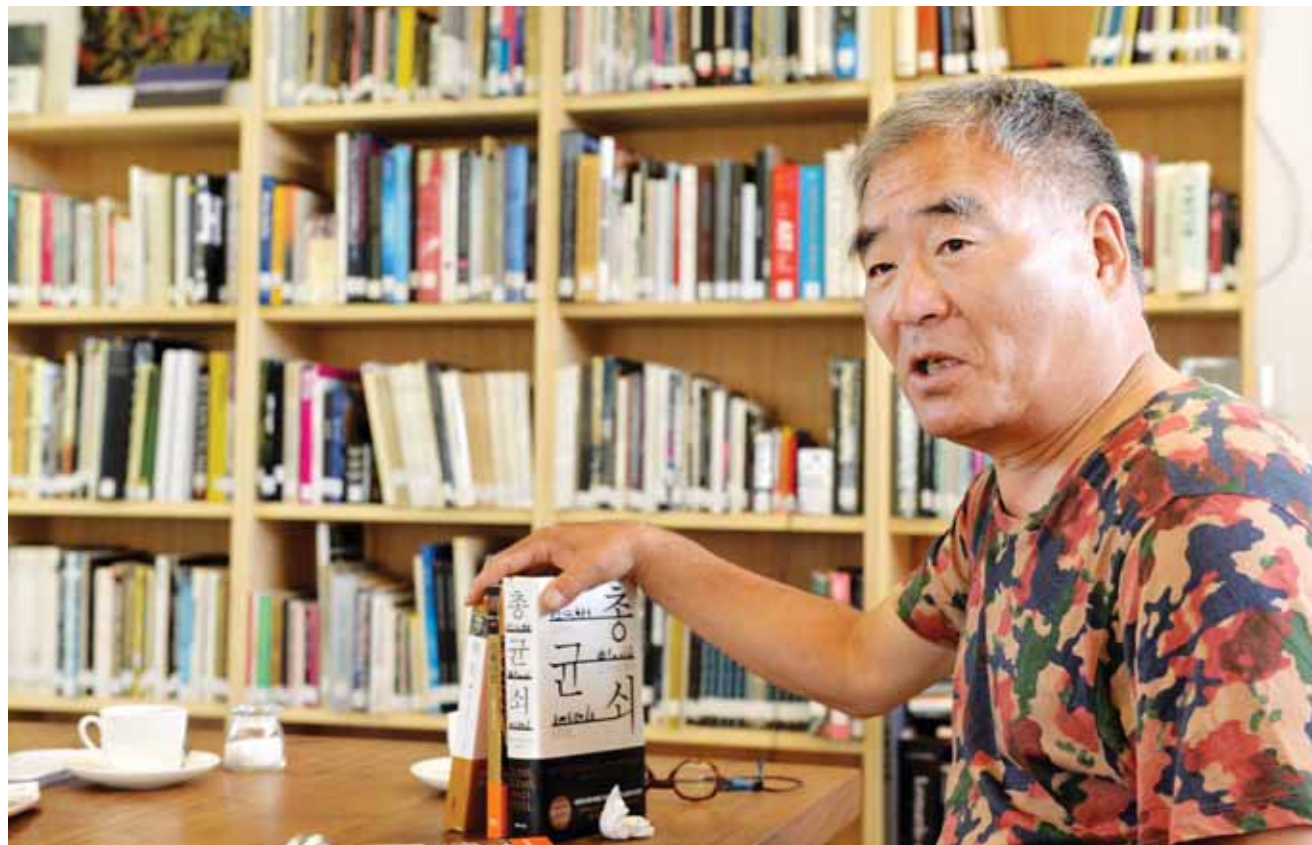
사진에 대한 일말의 철학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피사체를 바라보고 해석할까.

그를 따라 올라간 이층에서 얼마간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작업실 겸 서재로 쓰는 2층은 의외로 심플하고 단출했다. 벽면 가득 양장본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는데, 대부분 사진과 관련된 서적이었다. 외국 원서에서부터 인문 서적에 이르기까지, 책들은 마치 영글고 포섭되기를 기다리는 피사체의 모습 같았다.

“미대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의 사진이 저널리즘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예술은 인문학적 소양이 있지 않고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흉대 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사진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사진작가가 되었다. 그가 생각하는 사진은 단순히 말해 ‘빛그림’이다.

사진은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보게 하는 예술이다. 뷰파인더 너머의 피사체를 읽어내는 힘은 통찰에서 비롯된다. 독



최근 파주 헤이리 예술촌에서 만난 배병우 사진작가는 피사체를 읽어내는 힘은 독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파주=최한배기자choi@kwangju.co.kr

## 자연과 생명은 ‘정서적 울림’ 일으키는 테마

### ‘월든’ ‘이중나선’ 등 읽고 예술적 지향점 찾아

서는 이를 매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심미적인 프리즘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그는 즐겨 읽은 고전으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이중나선’, 에르빈 슈뢰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꼽는다. 이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자연과 생명을 다룬 현대 고전이다. 바다 출신의 그에게 자연과 생명은 ‘정서적 울림’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테마다. 그 때문일까, 배 작가 작품의 소재는 대부분 바다, 소나무, 꽃 등 자연이 주류를 이룬다.

그 가운데 ‘월든’은 자연의 위대함과 예술적 지향이 어떻게 결집되어야 하는지를 깨우쳐준 책이다. 소로우의 자연과 동화되는 삶은 배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맥락된다.

근래에 읽은 이중선의 ‘사람을 말하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금쇠’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명저들이다. 전자기 융성깊은 인생의 지혜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후자는 인류의 다양한 문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채롭게

추적한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작가는 누구일까. 그는 주저 없이 미국의 사진가 에드워드 웨스턴(Edward Weston 1886~1958)을 든다. 웨스턴은 미국 풍경 사진의 대가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포착하는데 남다른 감각을 지녔다.

배병우는 웨스턴의 사진에 대한 치열한 열정을 좋아한다.

“그가 주로 찍은 대상이 바다였는데, 그것은 내가 아주 일찍부터 그렸던 바다였습니. 내 사진에 그의 스타일이 녹아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배병우의 사진은 스펙트럼이 넓다. 오늘날의 그를 있게 한 소나무 사진만 봐도 그렇다. 지역, 식생, 수령, 국가, 이미지,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본의 미술평론가 치바시게오는 “배병우의 소나무는 신체를 닮았다”고 평한다.

그가 소나무를 찍게 된 계기는 1984년 낙산사에서였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다가 보았던 소나무에 단단히 끌이 끌렸다. 강렬한 전류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동이를 무렵은 아주 매력적인 시간이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순간은 무엇에 비할 데 없을 만큼 신비감을 줍니다. 해가 뜨기 직전, 안개와 뒤섞인 빛의 소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성을 자극하니까요.”

사진은 빛을 이해하고 ‘장악’해야만 가능한 예술이다. 새벽녘의 작업은 천성적으로 부지런했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경매를 위해 매일 새벽 어시장에 나가야 했던 아버지의 삶은 그 자체로 교과서였다.

창덕궁과 종묘 그리고 알함브라 궁전 사진도 빛과 시간이 빛의 결과물이다. 지고한 기다림과 회화적 감각 없이는 담보될 수 없는 빛그림이다. 이들 작품에는 그만의 독특한 색깔과 정체성이 투영돼 있다.

그는 지난 1981년부터 서울예대 사진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금은 휴직을 하고 오로지 사진 작업에만 몰두한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축적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절대적인 시간의 분량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다.

“중국 속담에 아무리 허술한 예술가도 만 권의 책과 만 리의 여행을 하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인터뷰 말미에 푹 던진 그의 말이 오랫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파주=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전국무용제 3관왕 휩쓴 그 춤사위

### 김미선무용단 ‘자메뷰’ 7~8일 빛고를 시민문화관

술하게 경쾌하고 뒀던 것들이 어느 날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현상 ‘자메뷰(Jamais vu)’. 이전에 경험했던 것, 익숙한 것, 낯설어지는 생소한 현상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왜곡된 현실과 인간소외, 실존의 문제를 표현한 현대무용 ‘자메뷰’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김미선무용단(Sun Dance Project)은 7~8일 이틀간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페스티벌 오!광주’ 브랜드공연 출품작 ‘자메뷰’를 선보인다.

‘자메뷰’는 김미선무용단의 강렬하고 독

창적인 무용극으로, 반가움과 동정, 자기연민이 한데 뒤엉켜 서로를 떼어내지 못하는 공간의 시간을 인연으로 이어가고자 한 작품이다. 지난해 전국무용제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 대통령상·안무상·연기상을 휩쓸었던 화제작이다.

임지형 조산대 교수가 총연출을 맡고 안무 김미선, 연출 및 대본은 조주현이 맡았다.

7일 오후 7시30분, 8일 오후 4시 두차례 공연된다. 티켓 가격은 2만원, 1만5000원, 1만원. 문의 062-670-746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호국의 달 평화를 노래하다

###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7일 문예회관

‘아름다운 선율로 평화를 노래하다.’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을 위한 평화 기원 합창축제’로 꾸며진다. 연주 레퍼토리는 ‘성프란체스코의 기도’, ‘평화의 기도’ 등이며 남성합창곡 ‘마

을’, ‘아베 마리아’, 여성합창곡 ‘모두 함께 노래 부르자’, ‘투쿠투쿠 타카티키’ 등도 들려준다. 드림 연주자 우재식과 함께 ‘라테즈 키 행진곡’, ‘나의 첫 안경’ 등을 선사한다.

이준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613-82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오만과 편견’ 10년간 고전 베스트셀러 1위

‘레미제라블’ ‘위대한 개츠비’ 등 고전 소설이 잇따라 영화화되면서 고전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보문고는 세계문학 전집을 펴내는 국내 주요 출판사 10개사의 세계문학 731종의 판매 부수를 조사한 결과 2003년부터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민음사)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민음사),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민음사),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열린책들), 스티븐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민음사) 순이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조사 대상 기간 10년 중 5년에 걸쳐 세계 문학 연간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오만과 편견’ ‘데미안’은 각각 2년 동안 연간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hello tv 가입하시면 LG LED TV 반값!

42형 LG LED TV: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990,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477,400원 (VAT 포함)

23형 LG LED TV 모니터: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377,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0원

헬로tv + LG LED TV 상품 안내 (VAT 포함)

구분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	3,088,800원	2,431,440원	13% ↓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	1,176,120원	788,040원	26% ↓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	427,680원	364,320원	6% ↓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	332,640원	253,440원	16% ↓

※주1) 인터넷 결제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 가입문의 1588-3450